다산포럼

송 재 소

빗자루를 거꾸로 드는 아이들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 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의원들과 교육부 관리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전국 5천876개 초·중·고교에 청소 용역비를 지원해 달라는 교육부 측과 "청소도 교육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의원들 사이의 실랑이였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의 지원 요청 근거는, "요즘 초·중·고교생들이 집에서도 청소를 안해서…" 또는 "대부분의 학교가 아직도 간단한 교실청소는 학생들에게 시키지만 화장실 청소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커 아줌마를 고용해 월 50만-60만원 정도 주고 시키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요즘 아이들은 빗자루를 거꾸로 들고 할 만큼 청소하는 법을 모른다"는 말도 나왔다.

이 신문기사를 읽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도대체 교육이 무엇인가? 올바른 인간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하지만 최소한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을 정리하고 깨끗이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일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의 반발이 크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 대부분 학교의 화장실은 수세식이다. 이런 수세식 화장실 청소마저 시킬 수 없다는 것은 그릇된 자식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명심보감'에도 "자식을 사랑하거든 매를 많이 주고 자식을 미워하거든 밥을 많이 주어라"(憐兒多與棒 憎兒多與食)고 하지 않았던가. 청소도 시키지 않고 왕자나 공주처럼 곱게 기르는 것만이 자식사랑이 아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 작은 일부터 잘할 줄 알아야 한다. 주자(朱子)의 '대학장구(大學章句)'서문에도, 사람이 나서 여덟 살이 되면 왕공(王公)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 소학(小學)에 들어가 물 뿌리고 쓸고 응대하는 일부터 배우게 한다고 말했다. "물 뿌리고 쓰는" 일이 곧 청소하는 일이다. '시경(詩經)'에서도 훌륭한 제왕이 되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뜰 안을 쓸고 닦는다"(夙興夜寐 灑掃廷內)고 했다. 이렇게 고전(古典)에서까지 '쓸고 닦는 일' 즉 청소를 강조한 것은 그것이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그만큼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이 갖추어져야 나중에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인가,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어느 중년 부부가 자기 집 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농성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텐트 옆에 '부모는 파업 중'이라는 팻말을 내걸고 벌이는 이들 부부의 농성 이유가 재미있다. 17세 된 아들과 12세의 딸이 평소 집안일이나 설거지도 돕지 않고 방 정리도 하지 않으며 빨랫감도 아무렇게나 내팽개친다는 것이다.

자식들에게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아서 최후로 택한 방법이 농성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이들에게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농성을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결코 이들이 미국의 부모들을 대표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부모들 중 자식들에게 집안일 돕고 설거지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아마 아이들의 학교청소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키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 후에 큰 인물이 되기 바란다면 집에서부터 청소를 시켜야 한다.

빗자루를 거꾸로 들면 바르게 들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명심보감'에서는 "자식을 사랑하거든 매를 많이 주라"고 했지만, 지금은 자식에게도 매를 주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매를 줄 수는 없고 그 대신 "자식을 사랑하거든 청소를 많이 시켜라"고 한다면 좀 지나친 말일까?

〈성균관 대학교 교수·다산 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기아차 광주공장 또 '채용 잡음'인가

기아자동차가 최근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정확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공모를 해 수 천명의 공모자들이 불공정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채용 잡음이 일고 있어 기아차의 도덕 불감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아차 광주공장 등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해 퇴직자 자연 감소 인원을 채우기 위해 본사에서 생산직 사원채용 공고를 내고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원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광주지역 근무를 희망한 지원자가 4천여 명에 달했다. 기아차는 이들 가운데 10명의 합격자를 선정, 이달 말께 광주공장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응시자들은 기아차가 채용공고를 하면서 '비정규직이나 장기 근속자 자녀 등 우선 채용대상자' 등에 관한 '우대원칙'을 명기하지 않아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아차는 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사내 비정규직이나 장기 근속자 자녀 등에 대한 채용을 우대키로 돼있는데도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원채용에 한 점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특히 공개채용에 있어서 모든 인사규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대기업이 합·불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심을 받을 만한 사려깊지 못한 처사다.

채용 우대 규정도 노사협약 사항이라고 하지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제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원 채용은 모든 응시자에게 동등한 자격과 기회를 줘야 한다. 사내 직원 자녀라고 해서 우대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우수 인력 채용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진정한 지역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채용 잡음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임시국회도 파행… 정치권 이래도 되나

국회의 모습이 가관이다. 지난 9일 정기국회가 끝났는데도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더니 11일 소집된 임시국회마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파행 운영됐다. 예산안 심의도 중단돼 여야 합의시한인 오는 15일까지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얼마나 볼썽 사나웠으면 임채정 국회의장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3당을 싸잡아 비판했겠는가. 정치권에는 대화와 타협은 없고 정쟁만 판을 치고 있다. 여야가 반성하는 모습은 없이 '네 탓'만을 하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주요 기능이다.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규정한 것은 국가 살림을 꾸려가는 예산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기더니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임시국회마저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회가 법을 어기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계류중인 법안도 2천900여건에 이른다. 여야는 정기국회 막판 국민연금법과 국방개혁법 등을 통과시켰지만 처리한 법안은 190여건에 불과했다. 계류돼 있는 법안에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것도 많다.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기고, 많은 법률안까지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행을 일삼는 정치권의 배짱이 놀라울 뿐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여당은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정계개편을 둘러싼 '집안싸움'에 몰두해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 예비주자들의 과열경쟁 속에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야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공방을 벌이며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당리당략에 묶여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더 이상 방치해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기 바란다.

NGO 칼럼

위 인 백

앰네스티, 왜 사형제 폐지운동 하는가

지금 국회에는 군부독재시절 민청학련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구제된 유인태 의원을 비롯한 17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사형제도 폐지법안을 상정하여 국회법사위원회에서 심의중이고, 세계적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창설이래 꾸준히 사형제도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형벌제도의 변천을 보면 원시·고대국가 이전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복수시대에서 위하시대(형벌의 국가화)와 박애시대(형벌의 법률화)를 거쳐 형벌의 개별화시대에 이르렀고, 형벌론은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응보형주의는 형벌의 본질이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사상으로서 범죄는 위법한 악행이므로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에 상응한 고통과 해악을 가해야 한다는 이론이고, 이는 칸트와 헤겔에 의해 주장되어 현재까지 각국의 형사정책과 형법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목적형주의는 형벌의 의미가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는 이론으로서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 사상적 배경은 인도주의, 사회주의, 합리주의 및 공리주의사상의 결합에 있으며, 목적형주의는 다시 잔혹한 집행을 통한 전시효과에 따른 일반예방주의와 범죄인의 개과천선을 목적으로 한 특별예방주의로 구분한다.

이렇게 형벌론에 대한 의견이 다르듯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법감정도 양분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상황도 흉악범들을 생각하면 사형제도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며, 판례도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을 고려하여 사형을 합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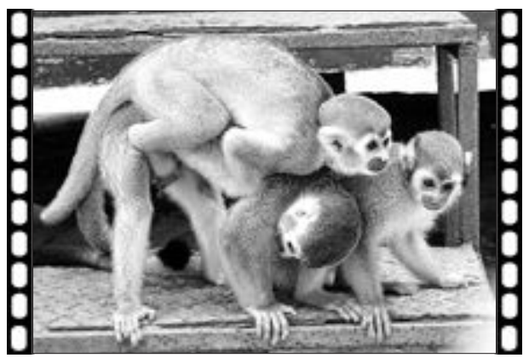
그렇지만 앰네스티는 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가. 앰네스티가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데는 죗값을 사해주자는 것이 아니다.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고 한번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형제도는 인간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이므로 생명존중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제도이고, 실제로 사형의 위하력도 높지 않으며, 피해자의 구제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형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독재권력에 의해 악용되어 온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자는 데 있다.

그동안 앰네스티는 꾸준한 사형제도 폐지운동을 전개하여 세계적으로 99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 등 노역장유치로 대체하고 있다. 68개국은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으며 30개국은 10년째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국민의 정부(김대중) 이래 아직까지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내년이면 사형 미집행국가로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법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한 결과 사형제도의 존속이 범죄율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생명존중에 따른 인권이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하므로 인도주의에 반하는 사형제도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고 시대적 요구이다.

〈국제 앰네스티 광주·전남지부 이사장〉

찰칵! 동물세상

다람쥐 원숭이의 기막힌 사연



두 갈래로 땋아 위로 삐친 빨간 머리, 얼굴 가득한 주근깨,'말괄량이 삐삐'를 기억할까. 1970년대 후반 인기 TV 외화 시리즈의 주인공인데, 삐삐가 어깨에 올려놓고 다니는 원숭이가 다람쥐 원숭이다.

워낙 작고 귀여워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을 비롯,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지만 어릴 때부터 사람 손으로 키우지 않으면 가까이 하기 여간 힘든게 아니다. 어미가 죽지 않으면 절대 자신의 새끼를 놓아주지 않는 탓이다. 이 때문에 오래전 비싼 새끼 원숭이를 구하려고 그의 부모를 모두 죽이는 밀렵이 성행하던 시기도 있었다.

비슷한 경우로 어린이 체험 학습을 위해 어느 동물원에서는 새끼사자의 발톱을 다 뽑아버리기도 한다.

우리 동물원의 다람쥐 원숭이도 사연이 있다. 보통 다람쥐 원숭이의 경우 갇힌 환경에서도 새끼를 잘 낳는 편인데 이상하게 우리 동물원에서만 새끼가 없었다. 수컷 1마리에 암컷 4마리인데, 아무래도 수컷의 무능 탓에 새끼가 없는 것 같아 수컷만 다른 동물원과 바꿨다.

이 후 그 해 봄 드디어 암컷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죽었다.

그래서 죽은 원숭이 새끼를 빼앗았더니 건강한 어미마저 식음을 전폐하다가 1주일 뒤 죽어 버렸다. 기막히지 않은가.

과연 동물들도 자살이 가능한 걸까?

◇ 최 종 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無 等 鼓

12년된 작전

1994년 10월 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마라톤 10km 지점, 한국의 황영조와 함께 달리던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일본의 히야타 도시유키가 갑자기 치고 나갔다. 황영조와 거리가 순식간에 50m까지 벌어졌다. 경기를 중계하던 해설자와 아나운서는 야단이었다. 하지만 황영조는 태평하게 달렸다. 경기를 지켜보던 국내 팬들도 이러다 영영 놓치는 것 아니냐며 손에 땀을 쥐었다.

그러나 이 모든게 작전이었다. 히야타의 '오버 페이스'를 유도하기 위한 황영조의 치밀한 계산이었고 그래서 그를 일부러 놓아주었던 것이다.

이날 황영조가 스퍼트를 하기로 한 곳은 32km 지점, 그 지점에 도달하자 스피드를 내기 시작했다. 34.5km 지점에서 앞지르기에 성공한 황영조는 히야타와 거리를 100m 이상 늘리면서 골인지점인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맨먼저 도착했다. 작전의 승리였다.

2006년 12월 10일 도하 아시안게임 마라톤 감독인 황영조는 12년 전의 작전을 그대로 적용했다. 강력한 우승후보인 카타르의 무바라크 하산 샤미가 초반에 치고 나가더라도 절대 따라붙지 말라고 지영준과 김이용에게 주문했다. 지영준의 스퍼트 지점도 30km로 잡았다.

그러나 이같은 전략은 처참한 패배로 이어졌다. 먼저 초반레이스가 조깅수준의 속도였다는 것부터 12년전과 달랐다. 또 샤미는 황감독이 전망한대로 뛰어주지 않았다. 초반이 아닌, 중반(22km)부터 스피드를 내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선수들은 앞서가는 샤미를 그저 바라볼수 밖에 없었다.

황영조 감독은 경기후, 변한 세태와 선수들의 정신자세를 질타했다. "요즘 선수들은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한 대 쥐어박으려 해도 어림도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한탄이 이해는 간다. 그러나 그는 12년된 작전을 그대로 들고 나온 답답한 패장이었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독자마당

소득공제 자동적으로 체크되는 방법 모색했으면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느라 한창 바쁜 시기다. 그 가짓수도 너무 많아 일일이 챙기기에 힘들 것이다.

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하며 챙기려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특히 언론 등에서 연말정산에 관한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지만 변수가 많고 또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일반 주부나 직장인들이 헷갈리기도 한다.

때로는 정보화 시대에 개인이 사용한 금액들을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체크되게 할 수는 없는지 의문을 가질 때도 있다.

몇푼 안되는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이리저리 다녀야 하고 또 인터넷으로 받기 위해 홈페이지에 억지로 가입도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직장인들은 이 시기만 되면 온통 소득공제 서류 챙기기에 정신이 없어 국가적으로 인력과 시간 낭비가 크다.

앞으로는 보다 시스템화되고 또 간소화되어 누구나 편리하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언제까지 수십년 동안 해온 해묵은 방법의 연말정산을 해나갈 것인지 답답하다.

▲우윤숙·광주시 동구 서석동

종친회 사칭, 족보 판매하는 사기꾼 조심해야

얼마전 종친회라면서 전화를 걸어와 집안 내력과 족보를 한글로 풀어서 책을 엮었는데 보내 주겠다며 주소를 물었다.

무료인 줄 알고 주소를 알려준 뒤 소포를 받았지만 시간이 없어 뜯지도 않고 있었는데 소포에 고지서도 동봉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집안 뿌리를 알수있는 족보라는 생각에 1~2만원 정도면 보내줘야지 생각했으나 시간이 없어서 보내지 못했다. 그랬더니 전화를 수도 없이 걸어 재촉하는데다 전화를 받지 않기라도 하면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걸었다.

결국 틈을 내 돈을 넣어주려고 살펴보니 책 두 권에 값이 무려 25만원이나 했다.

종친회를 사칭한 사깃꾼 업자가 어디서 종친회 족보같은 것을 구해다가 농간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됐다.

다행히 소포속의 책을 뜯지 않아 그냥 돌려보내도 될듯한데 업자들이 이제는 족보까지 이용해 사기치는 것만 같아 씁쓸했다.

▲이영석·광주시 동구 대인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